**HTML 개요**

|  |  |
| --- | --- |
| 1 |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없음)  (1) HTML은 Hyper Text Markup Language로서 전자 문서 작성을 위한 명령어를 의미한다.  (2) HTML을 실행할 수 있는 전용 프로그램은 웹브라우저이다.  (3) HTML은 원본 소스가 그대로 노출되어지므로, 보안적 내용은 작성하지 않는다.  (4) 웹사이트를 방문하게 되면, 서버에 존재하는 HTML 문서가 나의 PC로 다운로드 되고, 그 다운 받은  HTML 파일은 웹브라우저로 바로 실행된다. |
| 2 | HTML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1) HTML은 Hyper Text Markup Language로서 일종의 프로그래밍 언어이다(문서이다)  (2) 메모장으로는 HTML을 작성할 수 없다.  (3) HTML 문서는 어떤 편집기로 작성하던 상관은 없지만, 확장자 만은 반드시 html이나 htm으로  해야 한다  (4) HTML 문서에 원하는 효과를 부여하려면 미리 정해진 문법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 문법은 브라우저  제조사들이 정한다.(W3C에서 정한다)  (5) 확장자는 html 문서인데, 실제 내용에 태그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면 실행 시 에러가 발생할 것이다.  (에러는 발생하지 않는다, 형식이 없이 글씨만 쓰는 효과)  (6) HTML을 작성하기 전에 어떤 브라우저에서 보여질지를 미리 고려해야 한다. 즉 브라우저에 따라  지원되는 태그가 전혀 틀리므로 여러 제품을 염두 해두어 동시에 개발해야 한다  (브라우저는 상관없다. 표준을 따르기 때문에)  (7) HTML에서 지원되는 tag 형식을 제정 및 공표하는 곳은 각 브라우저 제조사이다.  (땡) |
| 3 |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1) Tag는 대소문자를 가린다. 즉 대소문자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으면 실행 시 에러가 난다  (프로그램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대소문자를 가리지 않는다.)  (2) Tag의 속성은 대소문자를 가린다.(아니야)  (3) Tag의 속성값은 반드시 쌍 따옴표로 작성해야 한다.  (에러가 나지는 않지만 제대로 써라)  (4) Tag 속성은 대소문자를 가리지 않으나, 소문자로 작성하는 것이 w3c 권장사항이다.  (5) Tag 속성값은 홑 따옴표로 작성하는 것이 권장사항이다. (쌍 따옴표) |
| 4 |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1) 전자 문서의 내용을 원하는 서식 및 디자인으로 표현하려면 결국 문서 작성을 위해 정해진 명령어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러한 문서 작성 용 명령어를 Tag라 부르며 W3C에서 표준을 정한다.  (2) 종이에 작성되는 일반문서는 펜을 이용하여 마크업을 할 수 있지만, 전자문서는 열고 닫는 <괄호>  를 이용하여 마크업을 수행한다.  (3) 전자문서를 이루고 있는 내용들 중, 특정 텍스트에 서식 효과를 주려면 마크업해야 한다.  이때 사용되는 마크업 수단이 바로 태그이다.  (4) 전자문서 작성시 특정 단어를 빨간색으로 표현하고 싶다면,해당 단어를 태그로 감싸서 마크업한 후  알맞은 색상을 적용하면 된다.  (5) HTML태그 문법은 W3C에서 표준을 지정하므로 IE, Opera, Firefox, Safari, Crome 등 웹브라우저의  종류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실행된다. 즉 한번 작성된 HTML문서는 소스의 수정 없이 여러 브라우저에서  실행 되어 질 수 있다.  (6) 태그간 포함관계 즉 특정 태그를 또 다른 태그로 감싸는 것(마크업)은 것은 불가능하다. (무한마크업가능) |
| 5 |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HTML문서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font> 태그는 크기 설정에 한계가 있다.  (2) HTML Tag는 전자문서 서식을 위한 기능만을 제공할 뿐이므로 문서의 범위를 벗어난 디자인적  표현에는 한계가 있다.  (3) HTML문서의 디자인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기술이 바로 스타일시트라 불리는 CSS이며,  CSS를 활용하면 전자문서의 한계를 벗어난 디자인적 표현이 가능하다.  (4) HTML Tag로 사칙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  (5) HTML은 서식 작성용 언어에 지나지 않으므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나 가능한 연산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
| 6 |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1) HTML 태그는 대소문자를 가린다.따라서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으면 에러가 발생한다.  (2) 모든 태그는 반드시 열고 닫아야 한다. 따라서 모든 태그는 반드시 하나의 쌍으로 존재해야 한다.  (3) 태그는 문서의 형식 및 디자인적 표현을 위한 많은 문법이 제공되지만, 문서 이상의 디자인적  표현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CSS를 사용하여 디자인 능력을 확장해야 한다.  (4) HTML문서가 개발된 1990년 당시 인터넷이 보급화, 활성화될 것을 미리 예상하여 HTML문서가  쇼핑몰이나 회원가입 양식 등 기존의 응용 프로그램이 담당하고 있던 프로그램적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
| 7 |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웹표준이란 기존의 table 태그를 div로 대체하자는 코드 작성법을 의미한다.  (2) 웹표준이란 HTML 태그가 갖고 있던 본래의 기능대로 코드를 작성하자는 각성이다.  따라서 컨텐츠의 제목을 표현하기 위해 <span>제목</span>이라고 해도 외형상 문제는 없으나,  HTML 본래의 목적상 제목을 표현하기 위한 태그인 <head>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특정 응용  프로그램이 웹문서를 해석할 때, 제목을 찾아내지 못할 수도 있다.  즉 웹표준이란 겉으로 드러나는 디자인 결과로 판단해서는 않되며, 특정 컨텐츠를 표현하기 위해  목적에 맞는 태그를 사용했느냐로 판단해야 한다  (3) 웹을 위한 표준을 개발하고 장려하는 조직이 바로 ANSI 이다.  (4) W3C에서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제작하였다.  (5)외부 플러그인 없이 순수 브라우저만으로 웹서비스를 받으려면, 한번 작성된 코드는 모든 브라우저  에서 똑같은 외형과 기능을 가져야 하는데, 이런 이유로 HTML 작성시 원래의 HTML태그 요소가  지닌 목적대로 코드를 작성하자는 자각에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웹표준이다.  (6) 제이쿼리는 자바스크립트와 관련성이 없다. |
| 8 |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어도비 플래시가 모바일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앞으로 플래시라는 기술 자체는  모바일뿐만 아니라 데스크탑 분야에서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2) 웹표준과 HTML5가 두각을 나타냄으로서, 플래시나 실버라이트와 같은 플러그인은 앞으로  웹브라우저에서 사용 비중이 낮아지게 될 것이다.  (3) 플래시가 사라지게 됨에 따라, 웹사이트의 모든 동적요소는 이제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스크립트  언어가 담당해야 하는 시기가 다시 도래하였다.  (4) 기존의 플래시가 담당했던 동적 움직임등을 자바스크립트가 감당해야 하므로, 디자이너가  플래시로 간단히 구현할 수 있었던 움직임도 이제는 프로그램 로직으로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업무시 큰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  (5) 디자이너가 프로그램 영역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2006년에 이미  발표된 기술인 Jquery가 다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Jquery는 유용한 기능을 자바스크립트로 작성하여 모아놓은 라이브러리이므로, 필요한 기능을 직접  구현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준다. |